

#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

## Evaluation and Requirement of Librarians on LIS Education

이제 환(Jae-Whoan Lee)\*\*, 이기명(Ki-Myung Lee)\*\*\*  
김정호(Jung-Ho Kim)\*\*\*\*, 윤유라(You-Ra Youn)\*\*\*\*\*  
이은주(Eun-Ju Lee)\*\*\*\*\*

### 목 차

- |                        |                        |
|------------------------|------------------------|
| 1. 서론                  | 3. 1 지식기반에 대한 요구       |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실무기술에 대한 요구       |
| 1. 2 데이터의 수집 방법        | 3. 3 업무자세에 대한 요구       |
| 1. 3 연구의 논리적 근거        | 4.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사서의 요구 |
| 2.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사서의 평가 | 4. 1 교육내용에 대한 공통적 요구   |
| 2. 1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 4. 2 교육내용에 대한 관중별 요구   |
| 2. 2 교과내용의 업무 관련성      | 5. 결론                  |
| 3. 도서관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서의 능력 |                        |

### 초 록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장 사서의 관점에서 현행 문헌정보학 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공공, 대학, 전문, 그리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47명으로부터 유효 답변을 회수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1) 현장 사서들은 현행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과 내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2) 그들이 생각하는 사서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능력은 무엇인지, 나아가, 3)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사서를 양성하기 위해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담보해 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lies in investigating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LIS education in Korea with an emphasis on the viewpoints of librarians. Also identified are the librarians' suggestions for a better LIS educational system, in particular, for the renovation of the current LIS curriculum to upgrade the competencies of future librarians. To this end, 347 librarians from public, academic, special, and school libraries were e-mail survey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nd interpreted to find out the specific problems and suggestions based on the types of libraries as well as the overall problems and suggestions.

키워드: 사서직, 전문능력, 지식기반, 실무기술, 업무자세, 문헌정보학 교육,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Competencies of Librarians, Knowledge of Librarians, Skill of Librarians,  
Attitude of Librarians, LIS education in Korea, Korean LIS curriculum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 울산남부도서관 사서(ki2306@hanmail.net)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kjh1975@pusan.ac.kr)  
\*\*\*\*\*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win8138@pusan.ac.kr)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lej79@pusan.ac.kr)  
논문접수일자 2005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12월 15일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 사회에서 사서직은 과연 전문직인가? 2년 전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을 향해 던졌던 질문이자 지금까지도 내 머리에서 맴돌고 있는 화두이다. 당시 학계에 발표한 논문에서 나는 직업사회학의 전문적 이론을 빌어 우리 사회에서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바 있다.<sup>1)</sup> 나는 우리의 사서직이 전문직의 대열에 '아직'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요건의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sup>2)</sup> 그러면서 향후 우리의 사서직이 전문직의 대열에 합류하려면 사서직의 지식기반, 교육제도, 그리고 자격제도에 있어 일대 혁신이 필요하며, 그러한 혁신을 위해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이 개혁 의지를 가지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의 사서직은 여전히 50여년의 어둠의 굴레에 갇혀있다. 2년 전에 했던 제안은 '과거의 클더미'에 용도 폐기된 채 버려져 있고, 우리의 사서직은 여전히 '전문직'을 향한 길증에 허덕이고 있다.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짚어보았고 나름대로의 처방도 제시하였지만 학계는 물론이고 현장의 무관심과 냉대에 머쓱함을 안고 주저 앉았다. 그러

나 학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이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계의 논의는 하루가 다르게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데, 도서관 현장에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부족으로 사서들의 신음이 늘고 있다. '전문 나아가 첨단 지식'의 생산은 늘고 있는데 막상 현장의 업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의 끝자락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계의 이론에 의지하여 논지를 펼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하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학계에 전달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문헌정보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가늠해 보고자 한 것이다. 물론 도서관 현장의 요구를 학계가 여과 없이 수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의 사서들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문헌정보학은 실무 현장을 가진 현장 중심적 학문이며, 현장의 발전은 물론이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현장의 요구가 학문

1) 이계환, 2003. 전문직 이론을 통해본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57-87.

2) 구체적으로, 도서관이라는 배타적 업무 영역은 확보하였으나 도서관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천박하기 때문이며, 문헌정보학이라는 지식기반은 갖추었으나 학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문헌정보학과과는 교육제도는 갖추었으나 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이며, 사서자격제도는 두고 있으나 인증의 절차와 방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며, 협회는 존재하지만 협회의 역할과 기능이 너무도 미약하기 때문이며, 윤리강령은 마련하였으나 실천의지는 밑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글은 '우리의 문헌정보학은 도서관 현장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현장 사서의 자질과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향후 문헌정보학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처방을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현장 사서의 관점에서 현행 문헌정보학 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1) 현장의 사서들은 현행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2) 그들이 생각하는 사서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능력은 무엇인지, 나아가, 3)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사서를 양성하기 위해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담보해 내야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 1. 2 데이터의 수집 방법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공, 대학, 전문, 학교도서관 등 관중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설문지를 발송하였는데, 구체적인 설문 대상과 응

답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도서관은 2004년도 『공공도서관편람』에 나와 있는 사서들 중에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485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95명으로부터 답변을 회수하였으며(회수율 19.6%), 이 중에서 답변이 부실한 2명을 제외하고 93명의 답변을 활용하였다. 다음, 대학도서관은 『2004 한국도서관연감』을 참조하여 정규직 사서 662명에게 설문을 발송하여<sup>3)</sup> 144명으로부터 답변을 회수하였으며(회수율 22%), 이 중에서 답변이 불완전한 9명을 제외하고 135명의 답변을 활용하였다. 이어, 전문도서관은 『2003년 도서관통계』에 수록된 도서관과 8개 전문도서관협회<sup>4)</sup>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리스트를 참조하여 268명의 사서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57명으로부터 답변을 회수하여(회수율 22%)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은 전국의 사서교사 268명 중에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62명으로부터 답변을 회수하였으며(회수율 27.5%), 이 중에서 답변이 부실한 2명을 제외하고 60명의 답변을 활용하였다. 이처럼 답변의 내용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347명의 사서로부터 회수한 설문지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다음의 <표 1>에 정리된 것처럼 다양한 근무연수의 사서들이 설문문에 참가하여 근무연수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다.

- 
- 3) 전국 대학도서관 중에서 사서수가 20명 이상인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서울/수원), 계명대, 고려대, 대구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서울, 안산) 도서관 등 23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 4)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Kore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KOSSIC), 건설정보관리협의회(KCIMA), 지식경제정보협의회, 전국은행정보자료실 실무자협의회, 한국조사기자협회(Korea Press Researchers Association)

〈표 1〉 설문응답자의 근무연수와 성별

근무연수	응답자(명)/응답률(%)				성별	응답자(명)/응답률(%)			
	공공	대학	전문	학교		공공	대학	전문	학교
3년 미만	3/3.2	7/5.2	0/0.0	19/31.7	남성	26/27.4	64/47.4	28/49.1	9/15.0
3년-5년 미만	3/3.2	4/3.0	6/10.5	21/35.0					
5년-10년 미만	5/5.2	11/8.2	10/17.6	9/15.0					
10년-15년 미만	20/21.1	18/13.3	15/26.3	2/3.3					
15년-20년 미만	29/30.5	20/14.8	12/21.1	2/3.3	여성	64/67.4	61/45.2	25/43.9	50/83.3
20년-25년 미만	24/25.3	39/28.9	6/10.5	2/3.3					
25년 이상	5/5.2	23/17.0	4/7.0	4/6.7	무응답	5/5.2	10/7.4	4/7.0	1/1.7
무응답	6/6.3	13/9.6	4/7.0	1/1.7					
합계	95/100	135/100	57/100	60/100	합계	95/100	135/100	57/100	60/100

한편, 설문지의 구성과 질문의 작성을 위해 서는 Griffiths & King(1985)이 사용한 CBE (Competency-Based Education)<sup>5)</sup>의 접근방법과 Rehman(2000)이 제시한 교과과정 평가 기준<sup>6)</sup>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이에 더해 미국의 ALA, ACRL, SLA에서 나온 교과목 가이드 라인과 국내외에서 발표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특히, 우리의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 교육 체제가 서구와는 다른 점을 고려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 2004년에 편찬한 『문헌정보학의 이해』와 2005년 현재 전국 32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을 세밀히 분석하여 설문지의 구성과 질문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지의 구성은 사서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통해서 배양해야 할 능력을 (1) 지식기반(knowledge), 실무기술(skill), 업무자세(attitude)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고, (2) 이 중에서 지

식기반과 실무기술의 부분을 <도서관경영>, <장서개발>, <자료조직>, <정보기술>, <참고봉사>, <정보검색> 등 6개의 영역으로 세분하였으며, (3) 이들 6개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능력을 각 영역별로 5개의 항목으로 세분하여 모두 30개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4) 업무자세와 관련된 항목은 모두 7개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현행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해 바라는 점, 도서관 현장의 관점에서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하는 교과과정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여, 객관식 질문의 한계를 나름대로 보충하고자 하였다.

### 1. 3 연구의 논리적 근거

하나의 직업이 전문직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학자에 따라

5) competency-based education은 교육학 분야에서 인증제(자격제도)의 필수 요건과 관련하여 개발된 것으로 사서직에 처음 적용한 것은 school media specialist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서였다.  
 6) Rehman은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특히 Griffiths & King(1965)의 연구를 재인용하여 평가의 기본적 틀을 제시하였다. 그는 지식기반(Knowledge), 실무기술(Skill), 업무자세(Attitude) 등 세 가지를 사서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기준에 근거하여 북미, 동아시아, 걸프만 지역의 국가를 대상으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배타적인 직무영역과 지식기반, 자격제도와 멤버십 단체의 활동이 서로 맞물리면서 사회적 인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직이 전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라는 배타적 직무영역에서 문헌정보학이라는 지식기반을 통해 직무의 조건과 내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서직의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당위성을 대내외에 피력하고 직업적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멤버십 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도서관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 그리고 도서관협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협회와 학계가 협력하여 사서가 전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면, 일선의 교육기관(LIS or Information School)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예비사서를 양성하기위해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협회는 다시 이들 일선의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하여 교육의 전반적인 품질을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ALA나 ACRL, SLA<sup>7)</sup> 등의 사서직 관련 전문직 협회는 사서

가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해 관중이나 업무에 따라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사서가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 또한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Griffiths & King(1985)을 비롯하여 Koenig(1993), Buttlar & DuMont(1996), Giesecke & McNeil(1999), Mahmood(2002), Rehman(2003) 등 여러 학자들은 사서가 갖추어야 할 능력(competency)을 도서관 경영진의 관점은 물론이고 실무자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문헌정보학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왔다. 그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사서가 갖추어야 할 능력은 knowledge, understanding, skill, 그리고 attitude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를 기초로 그들은 도서관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기반이 무엇인지, 어떠한 실무기술표를 갖추어야 하는지, 사서로서 어떠한 업무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철저히 '현장의 관점'을 반영하는 가운데서 사서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즉,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담보해 내야 하는 교과과정과 내용에 대한 연구가 바로 도서관 '현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7) ALA에서는 문헌정보학 프로그램(MLIS)을 운영하는 기관 인증 기준 중 정보와 지식의 생산, 커뮤니케이션, 확인, 수서, 조직과 기술, 저장과 검색, 보존, 분석, 해석, 평가, 합성, 배포, 경영 등이 커리큘럼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ACRL에서는 Library school에서 교육할 때 ①사서직의 이론, 원리, 역사, ②고등교육환경의 심층적인 지식, ③학술활동을 위한 준비, ④technology 이슈를 이해, ⑤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 프로그램 수행, ⑥계획과 경영, ⑦도서관 효과 평가, ⑧법률과 정책 이슈에 대한 지식, ⑨윤리적 이슈에 대한 지식, ⑩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감상 등을 Library school에서 교육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SLA에서는 전문도서관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professional competencies인 정보자원, 정보접근, 테크놀로지, 경영 및 연구,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이용하는 능력과 personal competencies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경력을 통한 계속 교육, 공헌도에 따른 부가가치적 특성을 설명, 업무의 새로운 세계에서에서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태도, 가치를 제안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사서직의 전문성이나 문헌정보학의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에서부터 '철학과 이론의 결핍'이라는 학문성의 문제, 나아가 '영세성과 변방성'과 같은 권력구조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점을 다루고 있다.<sup>8)</sup> 특히,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과 관련하여서는 급변하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존 교과과정의 개편 및 보완에 대한 논의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up>9)</sup>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우리 도서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우리에게 적합한 문헌정보학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언하기 보다는 도서관 선진국의 연구결과에 의존하여 우리의 실정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간혹 도서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시도도 보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의 도서관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연구보다는 외국의 도서관 현장을 기반으로 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장과 괴리된' 연구 경향은

사서의 자격에 관한 연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도서관 목록사서의 자격요건을 제시한 연구나<sup>10)</sup> 법률사서와 의학사서에 요구되는 능력을 제시한 연구<sup>11)</sup>의 경우 조사의 기반이 우리가 아닌 외국의 도서관 현장이라는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우리 도서관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도<sup>12)</sup><sup>13)</sup> '도서관 현장'을 핵심에 놓고 현장 사서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는 시도보다는 기존의 교과과정이나 직무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에 의존하면서 논의를 전개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이상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도서관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해 내기 위해 문헌정보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철저히 우리 도서관 현장에 근무하는 사서의 관점에 기초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장 사서들이 현행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예비사서가 갖추어야 할 능력은 무엇이며, 그러한 능력

- 
- 8) 구본영, 2000.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정체성과 미래의 전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93-112. 김정근 편, 2000.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태일사, 한국정보관리학회, 1995.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최성진, 1993.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 이춘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3. 등.
  - 9) 엄영애, 2003. 문헌정보학과의 코어 교과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33-49. 한복희, 1999. 변화하는 도서관환경에 대비한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2): 179-198. 박동철, 1999.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전공의 학부 구성 및 사서 자격 인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4): 157-182. 등.
  - 10) 정연경, 1997. 대학도서관 목록사서의 역할 및 자격 요건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14(2): 143-163.
  - 11) 홍명자, 2001. 법률전문사서의 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3): 249-274. 윤영대, 2003. 의학사서직의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1): 131-146.
  - 12) 안인자, 2003. 사서교사(사서)의 직무분석을 통한 양성기관의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3): 79-95.
  - 13) 김종성, 2004. 학교도서관 영역 교과목 운용 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371-392.

을 갖춘 예비사서를 양성하기 위해서 현행 문헌정보학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사서의 평가

그러면, 현행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해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논의해 보자.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1) 현행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사서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2)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교육내용의 업무 관련성)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 2.1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다음의 <표 2>는 문헌정보학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설문조사에 참가한 사서의 18.5%만이 현행 교과과

정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인데 비해 무려 3배에 이르는 사서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매우 만족'하고 있는 사서는 단지 1.3%에 불과한 반면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서는 25%나 되어 현행 문헌정보 교과과정에 현장 사서들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종별로 분석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 비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68.7%가, 학교도서관의 경우 58.6%가 현행 교과과정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 교과내용의 업무 관련성

문헌정보학 '교과내용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견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표 3 참조). 설문조사에 참가한 사서 중에서 단 10.7%만이 현행 교과과 내용의 도서관 현장의 업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무려 61.6%에 이르는 사서들은 교과과 내용이 현장의 업무와 괴리되어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교과과 내용이 현장의 업무와

<표 2> 현장 사서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전체 만족도		관종별 만족도			
구분	만족도 (비율% / 명수)	만족도 (비율% / 명수)			
		공공	대학	전문	학교
매우불만족	25 / 77	26.2 / 21	18.6 / 22	26.9 / 14	34.5 / 20
불만족	27.9 / 86	42.5 / 34	24.6 / 29	17.3 / 9	24.1 / 14
보통	28.6 / 88	18.7 / 15	31.4 / 37	36.5 / 19	29.3 / 17
만족	17.2 / 53	11.3 / 9	22.9 / 27	19.2 / 10	12.1 / 7
매우만족	1.3 / 4	1.3 / 1	2.5 / 3	0.0 / 0	0.0 / 0
전체	100 / 308	100 / 80	100 / 118	100 / 52	100 / 58

〈표 3〉 교과내용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사서의 평가

전체 평가		관종별 평가			
구분	업무 관련성(비율%/명수)	업무 관련성(비율%/명수)			
		공공	대학	전문	학교
매우괴리	32.9 / 95	34.7 / 25	22.0 / 24	34 / 17	50 / 29
현장괴리	28.7 / 83	40.2 / 29	28.4 / 31	20 / 10	22.4 / 13
보통	27.7 / 80	18.1 / 13	29.4 / 32	40 / 20	25.9 / 15
현장관련	10 / 29	7 / 5	18.3 / 20	6 / 3	1.7 / 1
매우관련	0.7 / 2	0.0 / 0	1.8 / 2	0.0 / 0	0.0 / 0
전체	100 / 289	100 / 72	100 / 109	100 / 50	100 / 58

‘매우 괴리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서가 34.7%에 이르러 절대 다수의 사서들이 문헌정보학의 교과내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이어, 관종별로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는 공공(74.9%), 학교(72.4%), 전문(54%), 대학(50.4%)의 순으로 부정적 견해가 크게 나타났는데, 앞서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에서와 동일하게 대학이나 전문도서관 보다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 사이에서 교과내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3. 도서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서의 능력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장 사서들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교과내용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현장의 사서들은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운 교과와 내용이 도서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분통을 터트렸다. 구체적으로,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학계와 현장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실무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고, 전문도서관 사서들은 현재의 교과내용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평생교육’과 같이 도서관에 부과되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과가 전무한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고, 학교도서관 사서들은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과가 부족한데 대해 실망을 표시하였다. 이처럼 관종에 따라 실망과 불만의 요인은 다양하였지만 현행 교과과정과 교과와 내용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렇다면 현장 사서들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서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먼저, 현장 사서들이 요구하는 사서의 전문 능력을, 앞서 언급한대로, 지식기반(knowledge), 실무기술(skill), 업무자세(attitude) 등 세 분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다음의 〈표 4〉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담고 있다. 표에 나타나듯이, 현장 사서들은 세 분야 중에서 업무자세를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여기고 있었



〈표 4〉 사서가 갖추어야 할 능력(competency)의 우선순위

전체순위	평가항목	순위 비율(%)	능력에 대한 관종별 평가			
			공공	대학	전문	학교
1위	업무자세	66.4	61.6	65.9	70.2	67.8
2위	지식기반	26.6	32	29.6	19.3	25.4
3위	실무기술	7.0	6.4	4.4	10.5	6.8
	합계	100				

으며, 이어 지식기반, 실무기술의 순으로 능력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관중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관중을 막론하고 모든 도서관 현장에서는 사서로서의 직업적 마인드와 소명의식 그리고 철학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영역별로 현장 사서들이 요구하는 사서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

### 3. 1 지식기반에 대한 요구

#### 3. 1. 1 사서직 전체에 대한 요구

지식기반(knowledge)에 대한 평가는 앞서 설명한 대로 문헌정보학의 학문분야를 <도서관경영>, <장서개발>, <자료조직>, <참고봉사>, <정보검색>, <정보기술> 등의 6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로 5개의 세부항목을 제시하여 실시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먼저 6개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부터 우선순위를 기입하게 하고, 다음으로 각 영역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부터 우선순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표 5>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응답자

들이 1순위로 선택한 영역과 항목에 따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현장 사서들은 '사서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기반'으로 <도서관경영> 영역을 꼽았다. 뒤를 이어, <정보검색>, <참고봉사>, <장서개발>, <정보기술>, <자료조직>의 순으로 영역별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지식기반의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도서관경영>의 경우 '도서관의 임무, 목표, 역할에 대한 이해'가 80.8%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검색>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이해'가, <참고봉사>의 경우에는 '참고면담과정에 대한 이해'가, <장서개발>의 경우에는 '모기관의 목적과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한 이해'가, <정보기술>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그리고 <자료조직>의 경우에는 '자료조직의 철학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현장 사서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별 세부 지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영역별 세부 지식에 대한 요구를 상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각 영역의 '철학이나 원리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요구가 가장 두드러지는 반면, 각 영역에서 다루는 세부적인 이론과 기법에 대한 요구는 그다

〈표 5〉 사서가 갖추어야 할 지식기반

지식 분야			세부평가항목		
분야별 순위		1순위 비율	세부평가항목별 순위	1순위 비율	
1위	도서관 경영	20.9%	1위	도서관의 임무, 목표, 역할에 대한 이해	80.8%
			2위	개괄적인 경영 이론과 기법에 대한 이해	7.9%
			3위	도서관의 조직구조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6.4%
			4위	도서관 외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3.9%
			5위	도서관 예산 및 재무관리에 대한 이해	1.0%
2위	정보검색	20.1%	1위	이용자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이해	35.2%
			2위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이해	22.7%
			3위	일반 검색엔진 및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	17.8%
			4위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이해	16.7%
			5위	정보검색시스템의 역사에 대한 이해	7.6%
3위	참고봉사	17.3%	1위	참고면담과정에 대한 이해	35.8%
			2위	참고정보원에 대한 이해	28.1%
			3위	이용자 교육에(information literacy) 대한 이해	24.1%
			4위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이해	11.6%
			5위	상호대차 및 문헌배달서비스에 대한 이해	0.4%
4위	장서개발	14.6%	1위	모기관의 목적 혹은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한 이해	73.1%
			2위	장서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이해	19.3%
			3위	서지도구에 대한 이해	4.2%
			4위	장서평가 및 폐기에 대한 이해	2.6%
			5위	인쇄 및 출판, 유통 등의 출판 산업에 대한 이해	0.8%
5위	정보기술	14.0%	1위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46.8%
			2위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	29.9%
			3위	도서관자동화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18.6%
			4위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2.4%
			5위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2.3%
6위	자료조직	13.1%	1위	자료조직의 철학과 원리에 대한 이해	51.1%
			2위	분류, 목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32.5%
			3위	자료조직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	13.0%
			4위	도서관 협동목록에 대한 이해	2.1%
			5위	색인, 초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1.3%

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현장=실무, 학계=이론'이라는 등식을 당연히 여기며 현장에 나가게 되면 실무에 적용 가능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가장 선호하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론적 지식보다는 업무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학문 저변의 철학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각되는 것은 '이용자를 이해하고 요구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이다. 이는 현장 사서들이 '이용자 중심적 업무 처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실무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서의 본질적인 업무와는 관련이 적은 지식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가령, '예산이나 재무 관련 지식', 혹은 '전산처리나 시스템 제작 등에 관련된 지식'에 대한 요구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1. 2 관중에 따른 요구의 차이  
다음의 <표 6>은 사서가 갖추어야 할 지식기

반에 대한 요구에 있어 관중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령,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는 <참고봉사> 분야가 1순위로 나타났는데 비해, 전문도서관에서는 <정보검색> 분야가, 그리고 학교도서관에서는 <도서관경영> 분야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중별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에서는 다른 분야에

<표 6> 사서가 갖추어야 할 지식기반에 있어 관중별 차이

지식 분야에 대한 요구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요구				
지식분야	관중별 1순위 비율(%)				세부 평가항목	관중별 1순위 비율(%)			
	공공	대학	전문	학교		공공	대학	전문	학교
도서관 경영	15.7	9.0	14.1	45.0	1. 도서관의 임무, 목표, 역할에 대한 이해	89	85.9	69.7	78.4
					2. 개괄적인 경영이론과 기법에 대한 이해	0	5.2	10.7	13.3
					3. 도서관의 조직구조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8.8	4.4	10.7	1.7
					4. 도서관 외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0	3.7	8.9	3.3
					5. 도서관 예산 및 재무관리에 대한 이해	2.2	0.7	0	3.3
정보 검색	18	21.1	29.8	11.7	1. 이용자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이해	38.2	31.3	28.1	43.3
					2.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이해	24.7	14.9	24.6	26.7
					3.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이해	16.9	18.7	26.3	5.0
					4. 정보검색시스템의 역사에 대한 이해	12.4	6.0	7.0	5.0
					5. 일반검색엔진 및 학술 DB에 대한 이해	7.9	29.1	14.0	20.0
참고봉사	24.8	25.6	10.5	8.3	1. 참고면담과정에 대한 이해	42.7	26.9	37.8	35.8
					2. 참고정보원에 대한 이해	31.5	37.3	28.8	14.9
					3. 특정 주제분야에 대한 이해	12.4	14.2	16.7	3.0
					4. 이용자교육에(information literacy) 대한 이해	12.4	20.9	16.7	46.3
					5. 상호대차 및 문헌배달서비스에 대한 이해	1.1	0.7	0	0.0
장서개발	15.7	10.5	10.5	21.7	1. 모기관의 목적 혹은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이해	66.7	67.2	78.5	80.0
					2. 장서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이해	27.8	20.1	16.1	13.3
					3. 서지도구에 대한 이해	3.3	8.2	3.6	1.7
					4. 장서평가 및 폐기에 대한 이해	2.2	3.0	0	5.0
					5. 인쇄 및 출판, 유통 등의 출판 산업에 대한 이해	0	1.5	1.8	0.0
정보기술	9	17.3	26.3	3.3	1.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40.9	43.6	59.6	43.4
					2.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	30.7	25.6	28.1	35.0
					3.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23.9	24.8	10.5	15.0
					4.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2.3	2.3	1.8	3.3
					5.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2.3	3.8	0	3.3
자료조직	16.9	16.5	8.8	10.0	1. 자료조직의 철학과 원리에 대한 이해	60.2	53.3	52	39.0
					2. 분류, 목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27.3	31.9	28.3	42.4
					3. 자료조직 과정에 대한 이해	10.2	11.9	17.9	11.8
					4. 색인, 초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1.1	0.7	0	3.4
					5. 도서관 협동목록에 대한 이해	1.1	2.2	1.8	3.4

비해 <정보기술>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자료조직>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대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경영>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정보검색>이나 <정보기술> 등에 대한 요구가 다소 높았다. 한편, 전문도서관의 경우에는 <정보검색>이나 <정보기술>과 같은 정보학 관련 지식에 대한 요구가 월등히 높은 반면 <장서개발>이나 <자료조직>과 같은 전통적 지식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1인 운영체제라는 특성이 그대로 들어나 <도서관경영>에 더해 <장서개발>에 관한 요구가 월등히 높았으나 <참고봉사>나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이처럼 6개 영역에 있어서는 관종별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였으나, 각 영역 내의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는 관종별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철학과 원리' 그리고 업무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공공도서관에서 이러한 '개괄적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다만, 대학도서관의 경우 참고정보원이나 검색엔진 그리고 학술DB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문도서관의 경우에는 정보탐색과정이나 디지털도서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자료조직> 영역에 있어 '철학과 원리'보다는 '분류와 목록에 관한 이해'를 강조하고, <참고봉사> 영역에 있어 '이용자교육에 대한 지식'을 가장 강조하는 등, 1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서인 동시에 교사로서의 업무도 수행하여야 하는 사서교사

의 업무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를 보였다.

### 3. 2 실무기술에 대한 요구

#### 3. 2. 1 사서직 전체에 대한 요구

실무기술에 대한 조사도 지식기반에 대한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다음의 <표 7>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현장 사서들은 '사서가 갖추어야 할 실무기술'로 <참고봉사>와 <도서관경영>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앞서 지식기반에 대한 조사에서는 3순위에 머물렀던 <참고봉사>가 실무기술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는 점과 <자료조직>의 중요도가 <장서개발>이나 <정보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처럼 <참고봉사>나 <자료조직>과 같은 도서관의 전통적인 서비스 관련 영역에서는 이론적 지식보다 실질적인 실무기술(skill)이 보다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경향이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이용자 중심적 업무 능력'이 중요시 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는데, 가령, <참고봉사>에서는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이용자 정보요구의 분석 능력'에 대한 요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장서개발>에서도 '이용자 요구의 분석 능력'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였다. 다음으로, 각 영역에서 핵심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가령, <도서관경영>에서는 '업무 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분석 능력'에 대한 요구가,

〈표 7〉 사서가 갖추어야 할 실무기술

실무기술 분야			세부 평가항목		
분야별 순위	1순위 비율	세부 평가항목별 순위			1순위 비율
1위	참고봉사	20.9%	1위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41.6%
			2위	이용자 정보요구의 분석 능력	40.4%
			3위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자료 개발 능력	13.4%
			4위	특정 서비스(SDI 혹은 Alert 서비스 등)의 개발 능력	3.9%
			5위	이용자 만족도 측정 능력	0.7%
2위	도서관경영	20.8%	1위	도서관 이용과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수집 및 통계분석 능력	50.8%
			2위	전략적 경영 계획 수립 능력	29.0%
			3위	내적 커뮤니케이션(모기관 포함) 능력	12.4%
			4위	외부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4.9%
			5위	도서관 홍보 능력	2.9%
3위	정보검색	17.8%	1위	탐색전략의 수립 능력	31.6%
			2위	다양한 소스의 활용 능력	25.3%
			3위	정보검색의 실행 능력	21.7%
			4위	각종 학술 DB 활용 능력	18.6%
			5위	검색결과에 대한 평가 능력	2.8%
4위	자료조직	16.1%	1위	자료에 대한 주제 분석 능력	67.6%
			2위	자료조직 규칙 및 도구 활용 능력	19.7%
			3위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자료에 대한 편목 능력	6.8%
			4위	편목시스템 활용 능력	4.0%
			5위	색인, 초록 작성 능력	1.9%
5위	장서개발	12.7%	1위	장서개발을 위한 이용자 요구의 분석 능력	60.9%
			2위	자료수집 및 수서 능력	32.0%
			3위	서지도구 활용 능력	8.3%
			4위	장서평가 및 폐기에 대한 능력	3.9%
			5위	수서시스템에 대한 활용 능력	2.5%
6위	정보기술	11.7%	1위	각종 소프트웨어 패키지 활용 능력(오피스, 포토샵 등)	44.2%
			2위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관리 능력	28.1%
			3위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능력	17.8%
			4위	하드웨어 관리 능력	8.2%
			5위	프로그래밍 기술	1.7%

〈정보검색〉에서는 ‘탐색전략 수립 능력’이, 〈자료조직〉에서는 ‘주제분석 능력’이 각각 1순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경영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긴요한 실무기술로 여겨졌던 ‘이용자 만족도 측정’이나 ‘도서관 홍보’ 그리고 ‘외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등과 관련된 능력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우리 도서관 현장의 조직문화가 여

전히 정적이고 폐쇄적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 3. 2. 2 관중에 따른 요구의 차이

실무기술에 대한 사서들의 요구는 지식기반에서의와 마찬가지로 관중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표 8〉에 정리하였듯이, 공공도서관에서는 〈참고봉사〉 능력이, 대학도서관과 전문도

〈표 8〉 사서가 갖추어야 할 실무기술의 관종별 차이

실무기술에 대한 요구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요구				
실무 분야	관종별 1순위 비율(%)				세부 평가항목	관종별 1순위 비율(%)			
	공공	대학	전문	학교		공공	대학	전문	학교
참고 봉사	27.5	21.1	21.8	13.3	1.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45.1	35.6	45.6	40.0
					2. 이용자 정보요구의 분석 능력	42.9	46.7	42.1	30.0
					3.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자료 개발 능력	6.6	13.3	5.3	28.3
					4. 특정 서비스(SDI 혹은 Alert 서비스 등)의 개발 능력	4.4	4.4	5.3	1.7
					5. 이용자 만족도 측정 능력	1.1	0.0	1.7	0.0
도서관 경영	14.3	6.2	12.7	50.0	1. 도서관 이용과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통계분석 능력	52.8	56.7	38.6	55.0
					2. 전략적 경영 계획 수립 능력	21	24.6	42.1	28.3
					3. 외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13.2	3.0	1.8	1.7
					4. 내적 커뮤니케이션(모기관 포함) 능력	12.1	11.9	14.0	11.7
					5. 도서관 홍보 능력	1.1	3.7	3.5	3.3
정보 검색	14.3	25.1	23.7	8.3	1. 다양한 소스의 활용 능력	29.4	18.5	21.1	32.2
					2. 탐색전략의 수립 능력	27.1	28.9	31.6	39.0
					3. 정보검색의 실행 능력	25	17.0	19.3	25.4
					4. 각종 학술 DB 활용 능력	15.2	31.1	24.6	3.4
					5. 검색결과에 대한 평가 능력	3.3	4.4	3.5	0.0
자료 조직	22	21.0	14.5	6.7	1. 자료에 대한 주제 분석 능력	65.2	57.8	66.1	81.1
					2. 자료조직 규칙 및 도구 활용 능력	20.2	25.2	21.4	12.1
					3.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자료에 대한 편목 능력	9.0	5.9	8.9	3.4
					4. 편목시스템 활용 능력	3.4	8.9	3.6	0.0
					5. 색인, 초록 작성 능력	2.3	2.2	0.0	3.4
장서 개발	14.3	9.4	7.2	20.0	1. 장서관리를 위한 이용자 요구분석 능력	52.8	55.6	71.9	63.3
					2. 자료수집 및 수서 능력	32.6	22.6	14	28.3
					3. 서지도구 활용 능력	5.6	17.3	7.0	3.3
					4. 수서시스템에 대한 활용 능력	4.5	3.8	1.8	0.0
					4. 장서평가 및 폐기에 대한 능력	4.5	0.8	5.3	5.0
정보 기술	7.7	17.2	20.0	1.7	1. 각종 소프트웨어 패키지 활용 능력(오피스, 포토샵 등)	50	53.3	36.8	36.7
					2. DB설계 및 관리 능력	23.3	22.2	36.8	30.0
					3.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능력	15.6	14.8	14.1	26.7
					4. 하드웨어 관리 능력	10.0	7.4	8.8	6.6
					5. 프로그래밍기술	1.1	2.2	3.5	0.0

서관에서는 〈정보검색〉 능력이, 그리고 학교도서관에서는 〈도서관경영〉과 관련된 능력이 사서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실무기술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러한 관종별 조사결과를 앞서 논의한 '지식기반'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단지, 전문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경우에 〈참고봉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식기반에서 보다 실무기술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 이들 도서관에서는 〈참고봉사〉를 이론적 측면 보다는 실무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14) 단지 대학도서관의 경우, 지식기반에서는 〈참고봉사〉가 1순위이고 〈정보검색〉이 2순위로 나타났으나 실무기술에서는 1, 2위의 순위가 바뀌어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의 경우에 <자료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식기반에 대한 요구에서 보다 실무기술에 대한 요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 이들 도서관에서는 <자료조직> 분야를 이론적 측면 보다는 실무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추측하게 하였다.

한편, 실무기술의 영역별 세부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관중에 따른 특징이 부각되었다. 가령,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전략이나 계획 수립' 등과 같이 경영적 관점의 실무기술 보다는 '도구나 규칙 혹은 소스의 활용'과 같이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기술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았다.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이용자 요구분석을 기초로 하는 실무능력과 도서관 자동화와 관련되는 정보기술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았으며, 전문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정보의 탐색 능력'에 더해 소프트웨어의 활용 능력, 특히 DB의 설계 및 관리 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교사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이용자 교육프로그램의 설계와 교육자료의 개발 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흥미롭게도 '홈페이지의 제작 및 관리 능력'에 대한 요구가

타 관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3.3 업무자세에 대한 요구

#### 3.3.1 사서직 전체에 대한 요구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장 사서들은 업무자세(attitude)를 사서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지식기반이나 실무기술은 실력 부족하더라도 학습과 실무를 통해 보충해 나갈 수 있지만 업무자세는 한번 고착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 기본 소양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다음의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사서들은 업무자세와 관련하여 '사회봉사 정신과 직업적 소명의식'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적극성과 열린 마음'을 특히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에 비해 비중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적응력' 또한 요구하고 있어 도서관의 미래지향적인 변화에 있어 사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이나 '지적 자유에 대한 존중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이용자 정

<표 9> 사서가 갖추어야 할 업무자세

평가항목별 순위		1순위 비율(%)	관중별 1순위%			
			공공	대학	전문	학교
1위	사회봉사 정신과 직업적 소명의식	33.6	41.5	32.8	16.1	44.0
2위	서비스에 대한 적극성과 열린 마음	33.4	31.9	38.8	37.5	25.4
3위	정보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적응력	17.3	17.0	11.9	26.8	13.6
4위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	6.4	5.3	3.7	8.9	0.0
5위	지적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존중	6.0	3.2	6.7	3.5	8.5
6위	이용자의 요구 파악에 있어 적극성	2.4	1.1	5.2	5.4	8.5
7위	이용자 정보보호에 대한 윤리의식	0.9	0.0	0.7	1.8	0.0
합 계		100				

보보호에 대한 윤리 의식'과 같이 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관리자로서 사서가 갖추어야 할 직업적 철학과 이념 그리고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는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 이 부분과 관련한 의식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 3. 3. 2 관중에 따른 요구의 차이

이러한 업무자세에 대한 현장 사서들의 요구는 관중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표 9>의 오른쪽 컬럼에 나타나듯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사회봉사 정신과 직업적 소명의식'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으나,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적극성과 열린 마음'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자세에 대한 요구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이들 도서관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기능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 기능을,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들은 교육과 학습에 대한 지원 기능을,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사서들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짐작 된다. 이는 전문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의 경우에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적응력'을 '서비스에 대한 적극성' 못지않게 주요한 업무자세로 강조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 4.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사서의 요구

지금까지 우리는 현장 사서들의 목소리를 빌어 '사서가 갖추어야 할 전문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서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서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서를 양성해 내려면 기존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과 내용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지금부터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요구사항'을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통계 데이터와 설문의 말미에 제시하였던 '자유기술난'을 통해 표출된 사서들의 의견을 참조하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교육내용에 대한 공통적 요구를 검토해보고, 그 다음, 관중별로 드러난 요구사항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4. 1 교육내용에 대한 공통적 요구

문헌정보학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 사서들의 요구를 앞서 논의해온 방식대로 '지식기반', '실무기술', 그리고 '업무자세'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기반의 강화와 관련하여 현장 사서들은 문헌정보학 교육이 "이용자 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도서관 업무는 도서관이 수집·정리·축적해 놓은 자료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중심적' 경향을 강하게 반영해 왔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이용자의 요구가 보다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도서



관의 물리적 반경을 넘어서는 적극적 의미의 '이용자 중심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변화된 태도와 요구에 현장 사서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내고 이를 도서관 업무와 연결시켜야 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이 되어야 하므로 지나치게 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술이나 기법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와 다양한 지식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5)</sup>

문제는 이러한 이용자 중심적 지식의 습득은 특정 교과목이 아닌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교육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교과목의 내용에 이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과 파악한 요구를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이 포함될 때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다.

현장 사서들의 두 번째 요구는 '현장성'에 중점을 둔 교과과정의 편성을 통해 실무기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다음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자.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 리콜제를 실시했으

면 좋겠다. 실질적인 업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 실무 중심의 교과과정이 부족하고 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아직까지 과거의 교과과정을 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sup>16)</sup>

문헌정보학은 실용학문인데 지나치게 이론화, 서구화된 교과과정으로 현장과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다. 신입 사서의 경우 도서관 실무에 기본적인 자료조직 능력, 서지도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의문스럽다.<sup>17)</sup>

이처럼 설문조사에 참가한 사서들은 신입 사서들이 현장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조차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이 이론, 특히, 서구식 이론에만 치우친 나머지 우리 도서관 현장에 필요한 실무기술을 배양하는 데는 소홀하고 있는 현실을 따끔하게 나무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식의 이론적 영역을 간과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테크닉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지식기반과 실무기술에 대한 현장의 요구에서도 논의하였듯이 현장 사서들은 실무기술(skill)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과 지식기반(knowledge)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을 구분하되, 실무기술을 위한 교육은 보다 현장성 있는 교과내용으로 구성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현장 사서들은 '사서로서의 정체

15) 서울지역 D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7급 사서의 설문지에서.

16) D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5급 사서의 설문지에서.

17) A 전문도서관에서 중간관리자 근무하는 사서의 설문지에서.

성과 직업의식'을 제대로 갖추게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인용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현장 사서들은 교과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으로 지식기반과 실무기술에 앞서 업무자세(attitude)를 꼽고 있다. 직업에 대한 철학과 이념 그리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조차 없이 알팍한 지식과 테크닉만을 갖춘 사서를 양성하는 교육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이론과 테크닉 중심의 교육이 낳는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현장 사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회는 지식과 테크닉만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다. 최근 배출되는 사서 인력들은 지식과 기술에 편중되어 사서직에 대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되어 보인다. 도서관은 사회적 기관임으로 철저한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곳이다.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하려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은 기본이고 사회봉사 정신 및 사서로서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sup>18)</sup>

현장에서 직업적 소명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철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서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책임을 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이 편성되었으면 한다.<sup>19)</sup>

## 4. 2 교육내용에 대한 관중별 요구

이러한 공통적인 요구에 더해, 문헌정보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들의 바램에는 관중에 따라 뚜렷하게 부각되는 차이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서관의 관중에 따라 현장 사서가 '갖추어야 할 능력'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서비스의 대상은 물론이고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유형, 나아가 업무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환경에서의 차이가 있는 만큼, 관중별로 사서에게 요구하는 능력에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차이는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에서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었다. 현장 사서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문제는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이 사서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업무환경과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럼 지금부터 관중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교육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

### 4. 2. 1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사서들 사이에서는 '평생교육'과 '독서교육'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가 특징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옛날처럼 책을 대출해주고 받는 식의 개념은 변한지 오래이다. 이제는 지역 주민, 그야말로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정보봉사가 이루어

18) D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6급 사서의 설문지에서.

19) P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7급 사서의 설문지에서.

져야한다. 우리사회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봉사대상이 부지기수이다. 이들에게 적절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공공도서관의 위상은 축소되고 존속을 장담하기 힘들어 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활동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막상 선임 사서로서 관장자리에 올라 보니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마땅한 곳이 없어 안타까웠다. 일본의 경우 체계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비로라도 다녀올 생각을 했을 정도로 상황이 시급하다.<sup>20)</sup>

평생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통해 도서관을 지역 주민의 생활 깊숙이 뿌리 내려진 기관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도서관 관리자의 고뇌가 그대로 전해진다. 이것이 어찌 이 관장만의 고민이겠는가?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사서들의 대부분은 동일한 고충을 털어 놓았다. 그들은 평생교육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애로점을 토로하면서, 문헌정보학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평생교육 못지않게 공공도서관 사서들 사이에서 요구가 많았던 것은 '독서교육' 분야이었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책의 내용은 뒤로하고 물리적 속성만을 다루는 지금까지의 업무내용과 방식으로는 사서의 전문성을 내세우기가 힘들다고 역설하였다. 최근 '독서'가 사회적 의

제로 자리 잡을 만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독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한 분위기에서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독서자료를 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간파하고 있었다.

신임 사서들이 오면 수서, 분류, 목록 등만을 사서의 전문적인 일로 생각한다. 진정으로 중요한 다른 업무, 즉 참고봉사나 독서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열람봉사 부서에 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기 일쑤이다. 그러다 보니 기껏 한다는 것이 도서관 대출해주는 것이다. 도서를 대출해주는 일이 어찌 전문적인 일인가. 문헌정보학과와의 교과과정에 대해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분류, 목록 중심의 테크닉 교육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진정으로 도서관이 살고 사서가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전문직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책의 겉 딱지에 대해서만 교육하지 말고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독서에 대한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는 독서지도, 독서교육, 독서치료 등과 같은 교과목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주제의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사서가 직접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sup>21)</sup>

이처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형식적인 독서지도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그들을 지식의 세계로 선도할 수 있는 독서프

20) 울산 N공공도서관 관장의 설문지에서.

21) 경남 C공공도서관 6급 사서의 설문지에서.

로그랩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본인들의 능력이 부족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책의 표지에 표현된 서지사항만으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장악하고 이용자들의 독서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을 '지식의 바다'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그러한 아쉬움이 우리의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보다 고급 단계의 '독서교육'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 4. 2. 2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양한 '언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운영이었다. 많은 현장 사서들은 신입 사서들이 '영어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우리 자료를 다루는데 필수적인 한문 능력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제2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서를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점을 아쉬워하였다.

다양한 형태와 언어로 이루어진 여러 자료들을 수집, 분류, 정리, 안내,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해독 능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그러나 영어는 어느 정도 해독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제2외국어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갖춘 사서는 드문 것 같다.<sup>22)</sup>

한문에 대한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겠다. 동양서 자료뿐 아니라 우리 자료에도 아직

까지 서명과 저자명은 물론 내용에 많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입 사서들은 한자 해독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가능하다면 한문1급 정도의 한자실력을 갖추도록 학교에서 교육하였으면 좋겠다.<sup>23)</sup>

'언어 능력'에 대한 요구에 더해 특정 주제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문헌정보학 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사서가 많았다.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문헌정보학계에서 제기된 것은 이미 수십 년이 되었지만,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과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현장 사서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방법론조차 없이 원칙론만을 주장하고 있는 학계에 대해 그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에서 주제전문사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문제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해야 된다'는 주장만이 어지러워요. 도대체 그 많은 교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문사회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나 서비스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공계나 예술 등은 정말이지 어려워요. 학부에서 장차 대학도서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부전공이나 제2전공을 필수화 하든가 아니면 대학원에서 타 전공을 학생을 받아들여 교육하는 과정을 강화든가, 어떤 식으로든 조속한 시행이 필요해요. 이용자는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으니까요.<sup>24)</sup>

22) W대학, 5급, 남, 25년 근무

23) K대학, 8급, 여, 15년 근무

#### 4. 2. 3 전문도서관

전문도서관은 정보환경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한 이용자 집단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관종의 도서관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전문도서관의 이러한 특징은 교과과정에 대한 현장 사서들의 요구사항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전문도서관 사서들은 무엇보다도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능력'과 '다양한 정보기술의 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내용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추억속의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어요.<sup>25)</sup>

변화하는 IT기술 등과 같은 빠른 정보기술에 대처하기에는 현재의 교육과정이 너무 진부하다.<sup>26)</sup>

교과과정이 주변 환경의 빠른 변화 속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sup>27)</sup>

이에 더해 전문도서관 사서들 사이에서는, 대학도서관 사서들과 마찬가지로 주제영역별 전문지식의 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및 교과과정의 편성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그들은 다양한 전문 영역에 관한 지식을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에서 모두 소화해 내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이 최소한 하나씩의 전문주제 영역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서 찾아내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정보학과와 교육계에 대한 그들의 주문은 매우 강경하게 표출되었다.

...그것은 학계와 교육계의 몫이다.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좀더 큰 안목과 열린 사고를 했으면 한다. 지금처럼 과거지향적 혹은 현실안주적이라면 학문과 학과의 존폐를 염려해야 하는 시기가 곧 도래할지 모른다.<sup>28)</sup>

#### 4. 2. 4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들 또한 학교도서관만의 특징적인 업무환경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뚜렷하게 표출하였다. 즉, 사서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기능의 수행과 1인 운영자로서 도서관의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경영 능력'과 '교육 능력'의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모아졌다.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요령과 수업실습 등 교사로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교과과정 편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직 관련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능력은 배양하지만 교과와 관련한 부분은 문헌정보학에서 배워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 사서교사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사서교사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과 교과와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sup>29)</sup>

24) Y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중간관리자의 설문지에서.

25) C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증견사서의 설문지에서.

26) D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최고관리자의 설문지에서.

27) E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증견사서의 설문지에서.

28) 의학분야 S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증견사서의 설문지에서.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니까 참으로 힘든 일이 많다. 다른 교과는 선후배나 동료 교사들이 있어서 모르면 물어보기도 하는 등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사서교사는 혼자이고 또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으려면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척척 알아서 해나가야 하는데 'management'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communication'에 대한 지식과 기법의 중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sup>30)</sup>

흥미롭게도 두 번째 이야기에는 '교육 능력'과 '관리 능력'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고언이 들어있다. 혼자서 학교의 장을 비롯하여 선배교사와 동료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를 감당해 내야 하는 사서교사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대인관계' 특히 '타인과의 대화'와 관련된 지식과 기법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현실에 공감기간다. 그러한 현실적 필요가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에 '학교도서관경영'과 '교과내용교육법' 나아가 '대인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좌가 보다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 5. 결 론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처럼 우리의 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은 문헌정보학의

강단과 도서관 현장 사이에 상당한 간극을 느끼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표출된 그들의 목소리에는 문헌정보학의 강단과 도서관 현장 사이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학문과 현장이 굳건한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절절히 녹아 있었다.<sup>31)</sup> 그런 절절함에는 현장으로부터 괴리된 학문의 미래를 우려하면서, 그로 인해 자신들의 지적 기반이 약화될 때 닥치게 될 현장의 쇠락을 염려하는 안타까움 또한 배어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우려와 안타까움은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학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제공하는데 소홀하다면 현장의 낙후는 물론이고 그 폐해가 고스란히 학문으로 돌아오고, 학문의 약화는 다시 현장의 피해를 촉진하게 되리라는 지극히 단순한 '순환의 이치'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도서관 현장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사서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직업의식이며, 이를 통해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에게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자세'의 확립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도서관 자료의 관리차원'을 넘어 '이용자 중심적 지식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기초가 되는 지식기반과 실무기술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서들로 하여금 그러한 업무자세와 지식기반 그리고 실무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헌정

29) 경북 A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설문지에서.

30) 부산 K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의 설문지에서.

31) 설문의 자유기술란을 통해 일부 사서들은 현장의 업무와 여러 면에서 유리되어 있는 현행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출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지금이라도 시도되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반기기도 하였다.

보 교육이 '학문의 철학과 이념 그리고 원리'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실무와 관련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모든 관종을 아우르는 현재의 보편적인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을 앞으로는 서비스의 대상(혹은 관종)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문헌정보학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도서관 현장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는 여로 모로 무리가 따르고 한계를 안고 있다. 대학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과는 2005년 현재 5명 내외의 전임교수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수 전공분야의 교과를 담당할 전공교수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학과가 태반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 현장의 요구에 적합한 교과과정, 특히, 관종별로 특화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과 여건을 핑계 삼아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비록 현재의 여건이 어렵더라도 도서관 현장도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학계도 진실해지기 위한 '지혜'를 찾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학계를 통해 교육 종사자들의 중지가 모아지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마

련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소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연구자가 속해있는 대학에서 얼마 전부터 시작한 '실험적' 방안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sup>32)</sup> 우리가 제시하는 방안의 요지는 관종별 전공트랙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최소전공학점제'가 유지되는 한 강단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사서를 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부의 저학년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기초필수 과목은 가능한 최소화하되 학문의 철학과 원리 그리고 직업적 소명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편성하고, 고학년을 위한 전공필수 과목을 관종별 트랙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해 보자는 것이다. 학생들이 기초 과정을 마치면 졸업 후 희망하는 트랙에 따라 관련 교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현장에서 요구하는 특화된 능력을 최소한도나마 갖추도록 하자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교과과정 전체를 새롭게 편성하고 각 교과목의 내용을 혁신하고자 하는 강단의 의지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단위 학과의 차원에서보다는 학계의 차원에서 진행될 때, 특히, 도서관 현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될 때 더욱 효과가 클 것이다. 학문과 현장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 문헌정보학계의 의지와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32) 한 예로 P대학에서는 2005학년도부터 교과과정을 새롭게 편성하고,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기 개설강좌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전공 트랙별로 도움이 되는 강좌들을 제시해 준다. 이와 함께 전공 관련 지식의 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타 학문의 교과목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과에서 편성해 놓은 교과과정과 개설 교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비록 한정된 전공과목의 이수를 통해서나마 학생들이 각자 희망하는 진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구본영. 1992. 도서관학·정보학 교육 및 교과과정 연구. 『인문사회과학논총(서울여자대학교)』, 7(92, 12): 275-297.
- 곽동철. 1999.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전공의 학부 구성 및 사서 자격 인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4): 157-181.
- 김중성. 2004. 학교도서관 영역 교과목 운용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한국 도서관·정보학회지』, 35(2): 371-392.
- 노영희. 2005.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1): 59-80.
- 노정란. 2003. 전문도서관 기반의 지식경영 방법론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344-363.
- 박일중. 2000. 국내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의 현황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 도서관·정보학회지』, 31(2): 197-221.
- 안인자. 2003. 사서교사(사서)의 직무분석을 통한 양성기관의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3): 75-95.
- 엄영애. 2003. 문헌정보학의 코어 교과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33-49.
- 이제환. 2003.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정보정책』, 서울: 한울.
- 이제환. 2003. 전문직 이론을 통해본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57-87.
- 정연경. 1997. 대학도서관 목록사서의 역할 및 자격 요건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14(2): 143-163.
- 한국문헌정보학회 문헌정보학의 이해 편찬위원회 편. 2004. 『문헌정보학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복희. 1997. 변화하는 도서관환경에 대비한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2): 179-198.
- Buttlar, L. and Dumont, R. 1996.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mpetencies revisited."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1): 44-62.
- Giesecke, J. and McNeil, B. 1999. "Core competencies and the learning organization." *Library Administration & Management*, 13(3): 158-166.
- Griffiths, J.M. and King, D.W. 1985. *New directio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Westport: Greenwood.
- Koenig, M. ed. 1993. "Education requirements for a library-oriented career in information Management." *Library Trends*, 42(2): 227-229.
- Mahmood, K. 2002. "Competencies needed for future academic librarians in Pakistan." *Education for Information*, 20: 27-43.
- Rehman, S. 2003. "Information studies



- curriculum based on competency defini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3/4): 276-295.
- Rehman, S. 2000. *Preparing the information professional: An agenda for the future*. Westport: Greenwood.
- ALA. 1999. “congress on Professional Education.” [cited 2005.8.8].  
 <<http://www.ala.org/ala/hrdrbucket/1stcongressonpro/1stcongressassociation.htm>>.
- ALA. 1992. “Standard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cited 2005.8.8].  
 <<http://www.ala.org/ala/accreditation/accredstandards/standards.htm>>.
- ALA. 2003. “LTA Competency.” [cited 2005.6.5].”  
 <<http://www.ala.org/ala/lssirt/lssirtresources/CTLTACompsrev2.doc>>.
- ASERL. 2003. “ASERL Competencies For Research Librarians.” [cited 2005.6.5].  
 <<http://www.aserl.org/aserlcompetencies.pdf>>.
- NPS. “Essential Competencies : Library Manager,” [cited 2005. 8.8].  
 <<http://www.nps.gov/training/npsonly/INF/t-libmgr.htm>>.
- SLA. 2003. “Competencies for Special Librarians of the 21st Century.” [cited 2005.8.9].  
 <<http://www.sla.org/content/SLA/professional/meaning/competency.cfm>>.